

삼성전자, 세계에서 가장 얇은 휴대폰 개발



6mm도 채 안 되는 두께의 휴대폰이 국내에 등장했다.

삼성전자는 5.9mm두께의 '울트라에디션 5.9(SCH-C210)'를 국내시장에 출시했다.

'울트라에디션5.9'는 세계 시장에서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프리미엄 라인업 '울트라에디션' 2기 모델 가운데 바(Bar)타입 휴대폰으로, 세계에서 가장 얇은 휴대폰이다.

5.9mm의 혁신적인 두께는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고집적 하드웨어 설계기술 'SSMT(Smart Surface Mounting Technology)'와 지속적인 부품 개량 덕분에 가능했다.

'울트라에디션5.9'는 손에 짚 때 가장 안정감을 주는 48.3mm의 '황금길이'로 가로폭을 결정했고, '팝핀 터치 키패드' 방식을 적용하여 버튼이 정상적으로 눌리면 미세한 진동이 손 끝에 전해져 정확한 입력과 함께 촉감 만족도를 높이는 등 감성 디자인을 적용했다.

특히 일반소재보다 훨씬 뛰어난 강도를 자랑하는 마그네슘과 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을 앞면과 뒷면 소재로 사용해 얇지만 튼튼한 휴대폰으로서 내구성을 높였다.

'울트라에디션5.9'는 5.9mm의 얇은 두께에도 불구하고 블루투스에 200만 화소 카메라, 이동식디스크, 전자사전, MP3 BGM 등 각종 기능을 두루 탑재했다.

LG전자, 세계 최초 '중국 3.5G 폰' 기술 개발

LG전자가 중국의 3세대(G) 이동통신 표준인 TD-SCDMA에서 진화한 HSDPA TDD 기술(3.5G 중국형 HSDPA)을 세계 최초로 개발, 시연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중국 3G시장 선점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LG전자는 지난 20일 전자기술원 산하 이동통신기술연구소에서 정보통신부 국책과제인 HSDPA TDD(TD-SCDMA HSDPA)용 단말기와 기지국 기술 시연에 성공했다고 4월 25일 밝혔다.



HSDPA TDD 기술은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3G 기술인 TD-SCDMA의 진화 기술로써 TD-SCDMA보다 5배나 빠른 데이터 다운로드 속도로 무선 인터넷이 가능하다. 현재 전세계 대부분 단말기 업체에서는 TD-SCDMA 기술로 화상통화를 포함한 384Kbps급의 서비스만 시연에 성공한 상태다. LG전자가 이번에 시연한 HSDPA TDD는 화상통화는 물론 세계 최초로 2Mbps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지원한다.

LG전자는 현재 중국형 3.5G폰 기술과 관련된 핵심 기술을 중국 미국 한국 등 3개국에 특허 출원한 상태이며 이르면 내년 초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이동통신연합회에 따르면 중국 휴대전화 시장은 2006년말 현재 1억 1900만대 규모이다. 가트너는 중국의 3G 시장 규모를 올해 169만대, 2008년 574만대로 예측하고 있다.

인켈, 5.1채널 분리형 홈시어터 출시



인켈은 디지털방송 본격화로 선명한 영상과 5.1채널 사운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AV리시버와 DVD플레이어를 분리한 5.1채널 보급형 홈시어터 2종을 출시했다.

AV리시버(모델명 RD6502)는 돌비디지털·DTS 등 기본 5.1채널 서라운드 포맷을 지원하면서 2채널 또는 4채널 사운드를 5.1채널 사운드로 변환시키는 돌비프로로직II 디코더를 탑재했다.

DVD플레이어(모델명 VD4502)는 일반 화질보다 2배 이상 촘촘한 주사선을 순차적으로 재생하는 '프로그레시브 스캔' 방식을 적용해 보다 세밀한 영상을 표현해 준다.

엠텍비전, 뮤직폰 전용 멀티미디어 칩 개발



엠텍비전은 뮤직폰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기능을 구현하는 뮤직폰 전용 멀티미디어 칩 '아스톤'을 개발했다고 3월 26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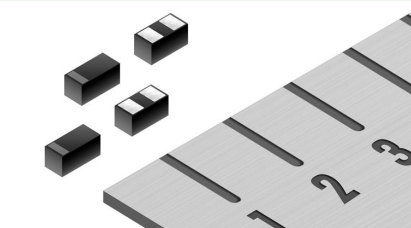
이 제품은 음악 전용 프로세스를 사용해 기존 멀티미디어 칩에 비해 음악 처리속도가 빠른 것은 물론 전력소모도 2배 이상 줄였다. 기존 뮤직폰의 음악 재생시간은 15시간 정도이지만, 엠텍비전의 아스톤을 사용할 경우 40시간에서 최대 70시간까지 음악 재생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아스톤은 뮤직폰에서 모든 음악 파일을 재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오디오 코덱을 모두 지원하며, 뮤직폰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와 USB2.0·미디어트랜스퍼프로토콜(MTP) 등의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이 제품은 베이스밴드 칩 없이도 동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MP3플레이어 등 휴대폰 이외의 오디오 전용 휴대용 기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최근 멀티미디어 휴대폰은 모든 멀티미디어 기능을 제공하는 휴대폰 보다는 음악과 같은 하나의 멀티미디어 기능을 특화된 휴대폰이 인기를 끌고 있어 뮤직폰 전용으로 개발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엠텍비전은 아스톤과 함께 사진을 보강하는 데 중점을 둔 멀티미디어 칩 등 특화된 멀티미디어 칩에 대한 제품군을 강화하고 있다.

엠텍비전은 이 제품을 2분기 부터 국내외 업체에 공급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매출은 하반기부터 발생할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했다.

로움전자코리아, 최소형 다이오드 패키지 출시



로움전자코리아는 다이오드의 패키지를 기존보다 면적 67%·두께 20% 이상 축소된 세계 최소형 다이오드패키지시리즈를 출시한다고 3월 25일 밝혔다.

로움전자가 최첨단 GDM2 패키지 기술을 적용해 개발한 제품은 휴대폰·디지털 카메라 등 휴대기기에 사용되는 다이오드로, 세트업계가 기기 디자인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전망이다.

GDM2시리즈는 면적이 0.6mm x 0.3mm(0603)인 업계 초소형이면서도, 초정밀가공기술이 집약돼 기존 1.4mm x 0.6mm(1406)·1.0mm x 0.6mm(1006)시리즈와 동일한 전기적 특성을 유지한다. 두께는 새 제품과 과거 제품 모두 0.3mm 다.

로움전자코리아측은 “현재 상용화된 최소형 다이오드패키지는 1.0mm x 0.6mm(1006)로, 휴대기기업계에서는 보다 작은 다이오드 패키지에 대한 요구가 이어져왔다”며 “초소형 휴대기기 설계의 제약요소로 작용해 왔던 다이오드 패키지 크기가 한단계 더 줄어들어 따라 휴대기기 디자인이 한층 다양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HP, 차세대PC 디자인 공개

한국HP는 3월 22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HP 모바일 이노베이션즈 투어’라는 주제로 미래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차세대 모빌리티 디자인 전략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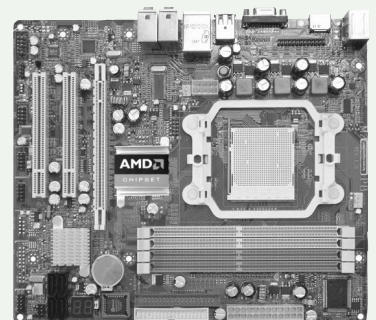
한국HP는 스테이시 울프 HP 노트북 디자인 담당이사가 진행한 이번 쇼케이스에서 무선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손목시계 등을 선보였다. 이 제품은 테크놀로지와 라디오에 언제 어디서나 연결이 가능한 중앙 무선허브 형태로 전화, PC, 노트북과 같은 다양한 IT 기기와 연동이 가능하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엑시스, 35배 네트워크 돔카메라 출시

엑시스커뮤니케이션은 35배 광학줌 네트워크 돔카메라 ‘AXIS 233D’를 출시한다고 3월 19일 발표했다.

이 제품은 네트워크 돔카메라 최초로 35배 광학줌과 프로그레시브 스캔을 함께 지원해 공항, 항만, 경기장, 카지노 등 고성능 영상감시가 필요한 장소에 적합하다. 또한 흔들림 보정기능을 채택하여 교통량이 많거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림이 없고 사람이 돔 카메라 아래로 이동할 때도 자동 전환하는 이-플립(E-flip)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계를 체결, 단일총판 체제를 구축했다.

유니텍, AMD 칩셋 주기판 출시



유니텍전자는 HDMI 단자와 AMD의 690G 칩셋을 탑재한 ‘AMD 690G HDMI 히드라’ PC용 주기판을 3월 18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칩셋에 그래픽 기능이 내장돼 있어 3D 게임 뿐만 아니라 고화질 영상 입출력이 가능한 HDMI 단자를 통해 평면 TV와 와이드 LCD 모니터와 연결이 가능하다. 또 DVI 단자는 물론 D-SUB 규격의 영상 출력이 가능해 듀얼 디스플레이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8채널 HD 오디오를 지원하며 원도비스타와 호환된다.